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음 11월 15일) 제2196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로화

전주시, 내년도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부담 수수료 0.3% 지원

향후 재정여건 감안해 지원율 확대키로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전주지역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형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로화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대표 민생 공약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 자립도를 높여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은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전주지역 소상공인(약 1만7,000여 명)으로, 시는 먼저 카드수수료 0.8% 중 0.3%(최대 14만4,000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우선 카드수수료 0.3% 지원하고, 향후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점차 확대해 최종적으로는 0.8%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도 논의를 거쳐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김승수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장기화된 경기불황에 이은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힘겨운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카드수수료 제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현재 전체 결제서비스의 70%정도가 카드 결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1만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도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카드수수료 지원정책은 서울시처럼 별도의 결제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직접 지원방식"이라고 설명하고"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적은 금액의 카드수수료도 큰 부담인 만큼, 앞으로 지원 비중과 범위를 넓혀서 적어도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에 가게 문 닫는 일은 없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 자동차부품 시범 스마트공장에 '티앤지'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지역 자동차부품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익산 소재 ㈜티앤지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파급효과 및 관련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시범공장을 구축해 스마트공장 노하우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담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는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제품 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된 지능형 시스템 구축 비용 및 시스템 연동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구입 비용으로 총사업비의 70%(최대 4억6000여만원)를 지원한다.

선정된 ㈜티앤지는 자동차용 조향 및 현가장치 등의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초일류 제품기술 보유 기업으로서 국내 모든 상용차 기업과 해외 유수 자동차 기업들에 자동차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티앤지의 시범공장 구축은 2019년 9월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며, 도내 자동차부품 중소·중견기업에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송년이벤트 '풍성'

'크리스마스를 은빛 설원에서'

이제 2018년도 저물어가고 있다. 12월은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로 맞이할 2019년도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때다. 모처럼 국내 여행을 떠나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한 해를 뒤돌아 보는 건 어떨까?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크리스마스 송년 이벤트를 선보인다. 연말 연시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호텔과 리조트들이 저마다 이벤트 행사를 펼치고 있지만 실속있고 다양한 이벤트가 어우러진 곳은 많지 않은 편. 그런 의미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가성비도 좋으며 가족 혹은 연인끼리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입맛에 딱 맞는 공간이다.

24일과 31일 밤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는 만선베이스 특설무대에서 입담좋은 MC의 레크레이션과 K-POP 댄스팀 공연과 세련된 무대매너를 선보이는 전자현악 공연, 그리고 스키장에서만 볼 수 있는 전광판 프러포즈, 정설차 포메이션, 스키 포메이션, 횃불스키와 은빛 설원 위를 화려하게 물들이는 환상적인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또한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산타클로스 선물 받기 이벤트가 열린다.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말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K-pop 공연과 선물받기, 불꽃놀이 등 다양한 이벤트로 리조트 이용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매일 INDEX

2면 - 새만금에서 '철인 3종' 열린다
5면 - 자사고 재지정 기준 80점 확정

'카카오 카풀 반대' 상경 투쟁… 텅 빈 전주역 택시 승강장

전국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상경 투쟁을 실시한 20일 전북 전주시 전주역 택시 승강장이 텅 비어 있다.

기회의 땅 새만금 주요현안 토론장 '방불'

도, 새만금 전문가협의회 정책 간담회

공공주도 매립 전담 새만금개발공사 운영 방안 제시

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계획 · 지역 상생 방안도 논의

전북도는 20일 서울에서 새만금 전문가협의회 정책 간담회를 열어 새만금 주요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새만금 주요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과 논의를 위해 남궁근 위원장을 비롯한 포럼위원과 국무조정실 새만금 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라북도,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다.

새만금 전문가협의회는 지방행정 도시계획 투자유치 등 각계의 도외 인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협의체이다.

그동안 공공주도 용지매립 공감대 확산과 잼버리특별법 제정 등 새만금 주요현안에 대해 객관적 중립적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자문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의 효율적 운영방안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SOC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기관별 발표에 이어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새만금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방향을 제시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 선도사업으로 새만금수변도시 조성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 부대사업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포럼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대안 모색을 위하여 지역의 잠재력과 연계하여 지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하여 새만금이 국책사업으로 위상을 높이게 되었고,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상생방안과 SOC 확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에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익산 쌍릉서 입구~석실 21m 백제 최장 묘도 발견

백제 무덤 중 입구에서 석실까지 가는 가장 긴 길이 익산 쌍릉 대왕릉에서 발견됐다.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익산시와 함께 조사한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의 대왕릉에서 백제 고분으로는 가장 길이가 긴 묘도(墓道)가 확인됐다.

묘도 길이는 21m, 최대 너비 6m, 최대 깊이 3m 가량이다. 최대급 규모로 일반 백제 고분의 묘도 길이보다 길다.

석실 입구 측 묘도 너비는 4m 정도이고 묘도 시작부분 너비는 6m 내외다. 바닥 높이는 80㎝ 정도로 석실 입구 쪽이 높게 형성돼 있다.

익산 쌍릉 묘도가 백제 왕도 가운데 최장임이 밝혀지면서 앞으로의 백제사 연구에 상징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우병희 기자